

본문: 창세기 3:14-24

제목: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셨다

1.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예상치 않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6 살 아이에게 식용유가 든 유리병 좀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병이 떨어져 깨져버립니다. 그럼 누가 이 깨진 병을 치워야 할까요? 어머니 아빠가 치워야 합니다. 날카로운 병 조각에 아이가 상하기라도 할까봐 아이를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뜨려놔야 하죠. 13 살 아이에게 아빠의 컴퓨터를 맡기고 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컴퓨터를 떨어뜨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누가 고쳐야 합니까? “야~ 니가 깨뜨렸으니까 니가 고쳐와.”라고 화가 나서 말할지 모르지만 아빠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컴퓨터를 맡겼다는 것은 혹시나 컴퓨터를 아이가 고장내도 자신이 고치겠다는 것을 전제로 아이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에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렸었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소명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제사장으로서 온 피조세계의 찬양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사명이 있었죠. 이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실패는 그들의 소명과 예배의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실 때 인간이 이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컴퓨터를 깨뜨린 아들의 아빠처럼 이제 인간이 망가뜨려버린 이 세상을 급하게 수습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은 것은 스스로 이 세상의 질서를 컨트롤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뜻인거죠. 창세기 3 장 22 절에 하나님은 자신과 동일하게 선과 악을 알게 되어버린 인간을 염려하십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길 바랐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가길 원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넘어짐(fall)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 세상 속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권위를 줬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플랜 B 가 작동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세상을 회복시켜야 했고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우선은 생명나무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켜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어진 유릿병에서 아이를 분리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은 무화과 앞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있는 인간과 그들을 속인 뱀을 두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잘못을 했으니 매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은 심판인 것 같기도 하고 약속 같기도 한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뱀과 남자와 여자 모두를 그 자리에서 없앨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생명을 취해 가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벌여 놓은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벌들은 모두 선과 악이 공존하는 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좋다, 선하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Tob 토브'입니다. 그리고 '나쁘다, 악하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Ra 라아'입니다. 토브와 라아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공존하였습니다. 기쁨과 괴로움, 좋고 나쁨이 동시에 있는 벌이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겉으로는 벌(Ra)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tob)였습니다.

먼저 15 절부터 봐보죠. 이 15 절 말씀을 교회 전통에서는 '최초의 복음(Proto-Euangelion)'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초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씨라고 표현된 명사가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보편적인 다수의 후손이 아니라 특정의 한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이 파괴될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자손 또는 한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승리는 거두는데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승리라는 겁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공존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16 절 말씀에는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이자 약속입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토브인 동시에 라아입니다. 여성분들 여러분이 첫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과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번째 아이를 낳을 때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만큼 더 기쁠 때도 없으셨을 겁니다. 여자의 삶에 토브와 라아가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괴로운 저주이자 선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또한 즐거움과 괴로움이 공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모두 압니다. 같이 살기 위해 결혼했는데 그에 따른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왜냐면 주도권 싸움이 부부 사이에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주도권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혼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함께 사는 즐거움을 맛보려고 한 결혼이지만 함께 함으로 겪는 괴로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토브와 라아의 공존입니다.

17 절부터 19 절 말씀은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무질서가 이 세상에 파고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 무질서 가운데 인간은 수고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동시에 맛있는 푸성귀도 생산하게 됩니다. 토브와 라아가 땅에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땅의 열매들을 수확하여 빵을 먹긴 먹지만 그 빵은 수고와 눈물이 흠뻑 젖은 빵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빵을 먹는 기쁨은 놀라운데 그 빵을 얻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해야 하는 저주와 약속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3.

저는 아담이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와 약속이 동시에 섞인 판결문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냈다고 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냐구요? 20 절 말씀에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더이상 여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데 그 이름이 '하와'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생명과 죽음의 두 측면이 동시에 주어진 판결에서 생명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으로 지은 것입니다. 아들을 벌주기 위해 때리면서도 울고 계신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긍정적인 반응에 맞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있는 것이구요. 물론 하나님은 아담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죽옷을 입혀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꺼이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선과 악을 알면서 생긴 수치심을 덮어 주신 겁니다. 인간이 망가뜨려

놓았지만 하나님이 수습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락부락 화만 내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빠져 버린 함정에서 건져내 주시되 그들에게 한계가 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자애와 사랑을 읽어 내야 합니다.

저는 인생의 신비를 토브와 라아의 공존에 있다고 봅니다. 선과 악은 늘 함께 있습니다. 저주와 약속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죠. 토브와 라아는 의형제처럼 우리 삶을 속에 발들여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브와 라아는 인간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간은 토브와 라아를 알게 해주는 나무를 스스로 따먹었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처럼 인간도 토브와 라아를 알게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선택한 결과가 그들의 삶에 그대로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토브와 라아를 동시에 겪게 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 제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 피조물인 인간에 맞서 다른 피조물들이 대항하게 되었죠. 땅은 인간에게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노동은 인간에게 수고로움과 괴로움을 줍니다. 하지만 노동은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땅과 하나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인간이 그와 멀어지고 떨어져 나온 땅과 하나되려 하고 공존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인간은 기력이 다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자기의 형제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땅으로 돌아간 인간은 그제서야 자신의 형제인 땅과 하나가 되어 썩어지고 결국엔 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과 인간의 공존은 인간이 갖고 있는 토브와 라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노동을 통해 늙어가고 병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노동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해 합니다.

4.

일주일 동안의 세속의 직업을 통해 쌓인 피로를 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저주 받은 인간과 적이 되어버린 땅과 하나되기 위해 몸부림 치며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공중 부양보다 어렵다는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지만, 그 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너무 큼니다. 이 세계가 일그러지고 망가진 세계인 까닭에 우리는 토브와 라아의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과 타인 그리고 자연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 땅이 주는 소산물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주는 저주는 아내와 남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결핍된 존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토브와 라아를 알게 됨으로 오는 인생의 피로들과 번뇌는 우리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우리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는 겉보기에만 저주였지 실은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이 토브와 라아의 공존을 이해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나아가 즐거움과 괴로움의 공존과 분열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복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색동옷을 입혀주었던 야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죽옷을 준비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망가뜨리고 망쳐 놓은 현실을 수습해 주시기 위해 안간힘을 쓰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무궁하십니다. 집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탕진하여 돌아온 아들의 삶을 보듬어 안아 주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엄정성과 심판의 엄정성 보다 불합리한 은총의 무궁함이 더 크다고 이야기 합니다. 왜 불합리합니까? 계산이 불합리합니다. 심판과 진노는 잠깐이고 인애와 사랑은 영원하잖습니까? 이것은 비대칭적 동등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삼 사대까지이고 인애는 천 대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틀린 계산법이죠. 진노와 축복의 속도를 보십시오. 진노가 오기는 오는데, 천천히 옵니다. 진노는 5 MPH 로 오는데 은총은 500MPH 로 속도를 위반해서 옵니다. 진노가 너무 더딥니다. 진노가 오기 전에 벌써 회개하기 때문에 진노는 더 천천히 옵니다. '이놈아 매가지고 간다' 했는데, 매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숙제를 다 해 놓은 격입니다. 진노가 갔더니 이미 은총의 효력으로 인간이 바뀌어 있습니다. 진노가 없어지지 않지만, 진노가 너무 늦게 작동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토브와 라아의 역설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너무 괴로운데 인간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놔두고 다른 신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괴로움 가득한 인생임에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생명을 예찬했던 아담처럼, 괴로운 인생길에 은혜로 기뻐하는 인생이길 축복합니다.